

근로자 복지·인프라 구축에 5185억원...투자금 유치 탄력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광주형일자리' 어떤 지원 받아

각종 내홍 끝에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팍팍했던 자금난도 승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5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과 하남·빛그린 산단 등 산단대개조 사업 등과 맞물려 광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자 복지혜택·인프라 구축 등 5185억원 지원=정부에서 지난해 2월 발표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처형 대기업 신규 투자방식과 산업위aggi지역 내 투자촉진형 방식 등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라는 대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혜택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등을 중심으로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우선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비 450억원(국비 216억원, 지방비 234억원)이 지원된다. 이어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62억원(국비 50억원), 공동직장어린이집 27억원(국비 21억원),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100억원(국비 50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 696억원(전액 국비), 빛그린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 250억원(국비 12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3030억원(국비 1431억원),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 구축 360억원(국비

국비로 어린이집·진입도로 개설

기업, 세금·산단 임대료 할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맞물려

빛그린산단 시너지 효과 기대

180억원), 경형 SUV 부품 사업화 지원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0억원(전액 국비) 등 총 5185억원이 지원된다. 이 중 국비지원액만 절반이 넘는 2944억원이다. 모든 사업예산은 이미 담당부처 예산에 반영했으며, 사업 시작과 동시에 투입된다.

기업의 경우 지자체가 재정사업 투자보조금 일부를 보조해주고 공유지 대부요율 인하혜택 등을 받는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 혜택도 일정기간 이뤄진다. 정부는 또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도 가산·지원한다. 투자세액공제 우대 등 법인세 감면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정부는 기숙사·통근버스도 3년간 지원한다.

자치단체(광주시)는 근로자에게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공동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지원할 수 있다.

전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사업선정에 따라 자금난 해소도 기대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는 총 사업비 5754억원 중 자기자본금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광주형일자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300억원 외엔 3454억원의 외부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KDB산업은행 주도로 전액 대출이 예상됐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한때 노동계와 갈등으로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산업은행 주도로 투자금 대출 등을 심의 중이며, 이번 상생형 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자금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산단대개조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인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는 빛그린 국가산단(1.847km²·56만평·광산구)은 올해 들어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정부 산단대개조 사업지 선정 등 겹경사를 맞고 있다. 빛그린 산단은 지난 3일 남구 에너지 밸리 일반산단, 도시첨단 국가산단, 첨단 3지구 등과 함께 광주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증대와 관련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엔 첨단·하남산단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산단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돼 3년간 정부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됐다. 광주시는 산단대개조 사업을 통해 일자리 1만명 창출과 제조업 부가가치액 1조 3000억원 증대, 369개 기업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전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지인 빛그린 국가산단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단대개조 사업지 선정 등과 맞물려 광주의 미래를 견인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인공지능, 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주력산업과 연계·상승시켜 청년이 몰려오는 광주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범여, 남북정상 합의이행 강조...“판문점선언 비준 추진”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해야”

당권주자들 한목소리 촉구

범여권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 남북관계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정상간 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며 "북한 정부는 남북한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판문점 남북정상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강조하고 "미국은 남북관계 발전을 도와야 한다"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 조속 재개되도록 북북제재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남북관계는 일회일비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현 정세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중인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민주당 주최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위협적인 인사를 잇달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든 대화를 단서는 안 된다"며 "민족의 미래에 책임이 있는 남북 지도자 모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부겸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역설적으로 대화의 절박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두 정상이가 다시 만남의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 진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북전단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위협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여권 의원 173명은 이날 한반도 중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경협 의원은 "중전선언은 북한이 예뻐서 주는 선물이나 아니라 남북 8천만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동선언실천 전남본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는 15일 6·15전남본부 회원 등 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남도청 도민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은 지난 2000년 역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다짐했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도민과 함께 남북 민간교류 확대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6·15 전남본부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고진형 상임대표의 대회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재 전남도의회 의장,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영상 축사에 이어 영재드림오케스트라의 기념공연, 시 낭송, 한반도 단일기 퍼포먼스, '우리의 소원'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20주년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선구자이셨던 김대중 대통



15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공동위원장인 김경길, 현시님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공동선언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석 기자choi@kwangju.co.kr

령님께서 나오자 자란 전라도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경제'의 디딤돌을 놓아가겠다"며 "전남의 농수산물과 의약품, 천연염 등을 북측에 보내고 농업분야의 기술교류를 적극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호남권 평화통일센터의 목표 유치가 확정돼 앞으로 통일과 관련된 인프라를 한데 모아 다각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히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